

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8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 의견	9

I. 일반개황

면적	237천 Km ²	GDP	117억 달러 (2014년)
인구	6.8백만 명 (2014년)	1인당 GDP	1,697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사회주의공화제	통화단위	Kip(K)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	환율 (달러당)	8,051 (2014년 평균)

-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미얀마,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. 베트남, 태국, 중국과의 투자 및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.
- 사회주의 국가로 라오인민혁명당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. 태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한때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으나,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.
- 구리,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수력발전을 통한 태국으로의 전력 수출, 광물 수출, 관광업의 활성화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.
-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2013년 2월 WTO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제성장률	8.0	7.9	8.0	7.4	7.2
재정수지/GDP	-1.7	-0.5	-5.6	-3.8	-4.6
소비자물가상승률	7.6	4.3	6.4	4.1	3.9

자료: IMF.

□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에 따라 2015년 7.2%로 전망

- 광물과 수력발전 생산량 증가,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건설업 호조,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2010년 이후 7%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각각 7.9%와 8.0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.
- 2014년에는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부진, 통화량 증가율에 대한 규제 도입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7.4%를 기록함.
-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, 불충분한 외환보유고,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상황 등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7.2%로 전망됨.

□ 세계원유가격 하락 등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.9%로 소폭 감소

- 라오스는 수입 중 태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2011년 태국 홍수피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7.6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나, 2012년 주요 소비재가격 안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.3%로 안정됨.
-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6.4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, 2014년에는 식료품, 원자재 등 수입물가 하락, 통화량 증가세 억제 정책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.1%로 감소함.
- 식료품 공급량 확대, 세계원유가격 폭락, 긴축 재정정책 등에 따라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.9%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국제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2015년 재정적자 비중은 4.6%로 추정

- 라오스는 후진적 조세제도,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지출이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.
- 2013년과 2014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각각 37%, 39.5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, 공무원 복리후생비 축소,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연기 등 긴축재정정책을 영위하여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3.8%로 감소함.
- 2015년 공무원 임금 동결 등 긴축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2015년 GDP대비 재정 적자비중은 4.6%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태국 및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2014년 기준, 태국이 라오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.1%, 64.2%를 기록하고 있어 태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갖고 있음.
-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임.

□ 통화 팽창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으로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 발생

- 최근 수 년동안 통화량 증가율이 20%를 상회하는 등 급속한 통화팽창과 동시에 불충분한 외환보유액 보유 등으로 라오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수입물가는 상승하였음.
-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속적인 자본재의 수입이 필요한 라오스는 경상수지 악화, 정부지출 확대 등 부작용을 겪고 있어 IMF와 세계은행이 통화량 급증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삼림과 광물 자원

-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41.5%가 숲으로 이루어져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수자원이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.
- 또한, 구리, 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동 자원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9%(2014년 기준)에 달함.

□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객 수의 증가와 발전 가능성

- 라오스 정보·문화·관광부에 따르면 비엔티안(Vientiane), 참파삭(Champassak) 등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2014년 관광객 수는 415만 명, 관광수입은 역대 최고인 6억 4,000만 달러를 기록함.
- 관광업은 광업, 수력사업과 함께 라오스의 3대산업으로서, 정부는 주요 관광지로의 국제공항 이전, 메콩강 유역 주변 국가 간 관광사업 추진협의,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.

다. 정책성과

□ WTO 가입 및 FTA 확대 추진을 통한 시장 개방 지속

- 1997년 WTO 가입신청 이후 지적재산권, 관세법, 투자법, 수출입 요건 등을 WTO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2013년 2월 WTO에 가입하는데 성공함.
- 201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 평가에 따르면, 라오스는 189개국 중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159위로 사업등록(85위), 재산등록(76위)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.
- 중국, 인도, 일본, 호주 등과의 FTA를 체결하고 미국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,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 상 수 지	-206	-413	-376	-334	-345
경 상 수 지 / GDP	-16.8	-32.0	-30.3	-26.6	-22.9
상 품 수 지	-1,515	-3,017	-3,401	-3,485	-3,258
수 출	3,120	3,323	3,882	4,119	4,498
수 입	4,635	6,340	7,283	7,604	7,756
외 환 보 유 액	741	740	662	815	815
총 외 채 잔 액	6,864	7,501	9,105	10,571	11,675
총외채잔액/GDP	84.1	79.8	84.4	90.8	91.2
D. S. R.	11.4	9.0	10.3	9.7	9.2

자료: EIU, IMF, OECD.

□ 수입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출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적자 감소 전망

- 구리, 금 등의 광물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35억 달러 규모의 시야부리 댐 건설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 확대 및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급증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2-2013년에는 광물, 수력발전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,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 폭이 증가함.
- 2014-2015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설비 확충을 위한 자본재를 수입하는 등 수입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, 원유가 하락에 따른 전력수출 증가에 따라 2015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32억 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관광산업 호황, 해외원조 등으로 2015년 경상수지 적자 비중 소폭 감소 전망

- 관광수입 증가와 원조자금 유입으로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적자로 2011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
- 2013-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, 관광수입의 증가 및 해외원조 유입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각각 30.3%, 26.6%를 기록하였음.
- 주요 관광지 인근 국제공항 개업 등으로 관광산업의 호황이 계속되었고 신규 플랜트사업 실시에 따른 원조자금이 유입되어 2015년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2.9%로 소폭 하락함.

□ 경제규모 대비 외채규모가 과중하여 대외지급능력 취약

- 총외채 중 45%는 양허성 차관이고, 20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91.2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임.
- 외환보유액은 8.1억 달러로 1.1개월분의 수입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~10%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라오인민혁명당(LPRP)의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

- 1986년부터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(Lao People's Revolutionary Party: LPRP)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임.
 -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원들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수반인 총리,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을 겸임하는 집단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.
- 라오인민혁명당은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,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.

2. 사회동향

□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 불안 가능성 내포

-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, 외국기업 앞 토지 제공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사회 안정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.

- 정부는 식량 보조금을 확대하고 빈곤 퇴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경작지에 상업빌딩을 건설하고 광업, 산림업, 수력 발전부문 투자를 위해 농경지를 몰수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임.

3. 국제관계

□ 몽족 강제송환 등 인권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

- 최초 탈북 청소년 강제 복송 및 몽족(Hmong)*의 강제 송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.
 - * 고대 중국의 중·남부에 거주하던 묘족이 현재 라오스, 베트남, 태국, 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민족
- 2013년 5월 탈북 청소년 9명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라오스 당국에 적발되어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 복송되었는데, 세계인권단체, UN, 우리나라 등으로부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함.
- 라오스 공산정권을 피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몽족의 강제 송환에 라오스와 태국이 합의하면서 2009년 12월 몽족 8,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라오스로 강제 송환되었음.

□ 태국,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

- 2015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)의 창립회원국 자격을 획득함.
- 전통적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정치 이념의 유사성으로 베트남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, 최근 최대 교역국인 태국 및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의 관계 또한 더욱 강화하고 있음.
 - 베트남은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으로 주로 광산개발과 수력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, 중국과 태국은 최근 광산개발, 인프라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.
 - 최근 라오스는 베트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댐 건설을 강행하였는데, 이는 라오스에서 태국 및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.
- 개방적인 중립외교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주변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투자유치 및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노력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태도 양호

- 라오스는 채무재조정 및 연체경험이 없으며, 2015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(Export Credit Agency) 인수승인 잔액 중 연체액도 없어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낮은 소득수준, 높은 외채 비중 등을 고려 OECD는 7등급 유지

- 라오스는 소득수준이 낮고 외채부담이 높으며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 역시 낮아 OECD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받고 있음.

* 라오스는 S&P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 대상국이 아님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74년 6월 22일 수교, 1975년 7월 25일 단교, 1995년 10월 25일 재수교 (북한과는 1974년 6월24일)

□ 주요협정: 투자보장협정(1996년), 이중과세협정(2006년), 항공협정(2010년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3>

한·라오스 교역 규모

단위 : 천 달러

對 라오스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165,040	187,050	156,047	자동차(부품), 건설광산기계
수 입	11,346	12,482	18,036	칼륨비료, 목재류, 연제품
합 계	176,386	199,532	174,083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2014년말 기준,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110위 수출국, 제129위 수입국임. 2013년 교역규모는 199.5 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나, 2014년에는 수출이 전년 보다 다소 감소함에 따라 교역규모는 174.1 백만 달러로 축소됨.
-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64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동국 앞 해외투자 실적은 112건, 2.9억 달러(2015년 6월말 누계 기준)를 기록함.

V. 종합 의견

- 주요 광산의 생산량 증가, 대규모 댐 프로젝트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7.2%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.
- 전력수출 증가로 2015년 상품수지 적자가 소폭 하락하고, 관광산업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하락한 22.9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.
- 라오인민혁명당(LPRP)은 시장경제체제 도입, 대외개방 등을 통한 경제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식품가격 상승, 빈부격차 확대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라오스의 통치체제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.
- 라오스는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채 중 양허성 차관이 약 45%를 차지하며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음. 하지만, GDP 대비 외채규모가 91.2%에 달하여 외채 상환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장은진 (☎02-6255-5716)
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